

‘S펜’의 진화 어디까지… 허공에서 눌러도 갤럭시 찰칵

삼성전자 ‘갤럭시 탭S6’ 공개

10.5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원격 제어 ‘S펜 에어 액션’ 첫 지원
후면에 1300만·500만화소 카메라 온 스크린 지문인식도 최초 적용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S6’를 공개했다. 지난 4월 출시한 ‘갤럭시 탭 S5e’를 잇는 신제품이다.

갤럭시 탭 S6는 10.5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S펜’과 삼성 노트로 태블릿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듀얼 카메라와 온 스크린 지문인식 지원 등이 전에 없던 편리한 사용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IM부부장 고동진 사장은 “오늘날 소비자들은 업무나 학습 같은 생산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며 “혁신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탭 S6는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모



갤럭시 탭S6.

/삼성전자

바일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S펜

갤럭시 탭 S6는 S펜의 움직임 인식해 원격으로 태블릿을 제어할 수 있는 ‘S펜 에어 액션’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사용자가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S펜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도 가능하다.

또한, S펜으로 작성한 손글씨를 손쉽

게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으며, 마이크 로소프트 워드를 포함한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해 메모의 편집, 저장, 공유가 편리하다.

갤럭시 탭 S6는 노트 투명도 조절 기능도 새롭게 탑재해 콘텐츠를 감상하면서도 팝업창 또는 전체화면으로 삼성 노트를 띄워 화면 전환 없이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노트 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삼성 태블릿 최초 듀얼 카메라

갤럭시 탭 S6는 삼성 태블릿 최초로 후면에 1300만 화소와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는 사람의 시야각과 유사한 123도 광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처럼 촬영 가능하다.

갤럭시 탭 S6 소개 영상에서 세계적인 예술가 코코카피탄은 이 제품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얇고 가벼워 한 손으로 들 수 있어 작업하는 동안 사용하기 쉬웠다”며 “특히 내가 보는 걸 보다 넓은 각도로 촬영해주기 때문에 초광각을 특히 좋아했다”고 말했다.

갤럭시 탭 S6는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인텔리전트 기능인 NPU를 탑재해 촬영 장면을 인식하고 분석해 각 장면에서 가장 적합한 설정을 지원.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준다.

삼성 태블릿 최초로 온 스크린 지문인식도 적용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 갤럭시 탭 S6를 북 커버 키보드와 연결하거나, 킥 패널에서 ‘삼성 맥스’를 터치하면 ‘삼성 맥스’를 실행할 수도 있다.

◆AKG 쿼드 스피커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경험

또한 갤럭시 탭 S6는 16:10 화면비의 10.5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돌비 애트모스로 완성한 4개의 스피커를 탑재해 향상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7nm 옥타코어 AP와 모바일 게임 엔진 플랫폼인 ‘유니티’, ‘언리얼 엔진’을 탑재해 게임을 할 때 그래픽과 사운드를 최적화해줘 더욱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삼성의 보안 플랫폼인 ‘녹스’로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며,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싱스’와 지능형 어시스턴트 ‘빅스비’로 다양한 IoT 제품을 연결하고 손쉽게 제어가 가능하다.

갤럭시 탭 S6는 마운틴 그레이, 클라우드 블루, 로즈 블러시 3종으로 8월 말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 시장에는 다음 달 6일 128GB 모델은 649달러(약 77만원), 256GB 모델은 729달러(약 86만원)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출시일과 가격은 미정이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가족이 함께 요리해서 즐거운 시간을”

LG전자, ‘애나 올슨 셰프와 ‘키친 메모리 레스큐’ 캠페인

LG전자가 직접 음식을 만들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최근 캐나다에서 유명 셰프 애나 올슨과 ‘키친 메모리 레스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들이 주방가전으로 함께 음식을 요리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LG전자는 캐나다법인 SNS계정으로 추억의 요리를 요청 받아 애나 올슨과 함께 재현하고 SNS에 공유했다.

LG전자는 캠페인에 LG 프로베이크 컨벡션 오븐을 이용했다. 다양한 요리를 빠르게 조리해주는 제품이다. /김재용 기자



LG전자는 셰프 애나 올슨(사진)과 프로베이크 컨벡션 오븐으로 ‘키친 메모리 레스큐’ 캠페인을 진행했다. /LG전자

삼성, 스타트업 육성… 1년간 최대 1억 지원

9월 11일까지 ‘C랩 아웃사이드’ 공모

삼성전자가 올해에도 외부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C랩 아웃사이드’ 공모전을 시작한다.

C랩 아웃사이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2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C랩을 사외로 확대했다. 2022년까지 스타트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주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의 시너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C랩 아웃사이드 공모전을 열고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1년간 최대 1억원 사업 지원금을 받고,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전용 업무 공간에 입주할 수 있다.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그 밖에 삼성전자와 사업협력과 CE

S 등 글로벌 IT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선발된 ‘두브레인’은 삼성전자 사회공헌 활동인 스마트스쿨 커리큘럼을 같이 개발해 캄보디아에 시범 운영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한글 가치 알린다… 네이버, 글꼴 개발

디지털 환경 맞춘 ‘마루 부리 글꼴’ 2021년 일반 사용자들에 무료 배포

네이버가 디지털 환경에 맞춰 한글꼴의 원형을 잇는 화면용 ‘마루 부리 글꼴’을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한글 사용자와 함께 한글꼴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화면용 글꼴을 설계해 나간다는 게 큰 뼈대다. 2018년 10월 한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마루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마루’는 한글 글꼴의 현대적 원형을 잇는 줄기라는 의미에서 지은 명칭이다. ‘정종(正宗)’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정종’을 ‘바른 마루’라고 부르며 시

작되었다.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오늘날 디지털 매체 환경에 맞춰 우리 한글 글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부리 글꼴은 조선시대 붓으로 다듬어진 궁체 중 해서체를 인쇄용 활자에 맞게 정리한 글꼴로, 글자 줄기에 부리가 없는 민부리 글꼴과 차이가 있다.

부리 글꼴은 서예에 기본을 두고 있어 손글씨와 같이 미세한 필압 표현과 높낮이가 있는 둥근 획, 감정이 담긴 섬세한 미감을 표현한다.

마루 부리 글꼴은 2021년 일반 한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구세윤 기자

20초만에 엑스레이 판독… LG CNS, 은평구에 AI 보건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계약 맺고 9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시대가 열린다. LG CNS는 최근 ‘민간 클라우드 기반 AI 의료영상 분석 보조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상은 서울 은평구 보건소다. 올해 9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클라우드 기반 AI엔진을 통해 94%의 정확도와 20초

이내의 빠른 속도로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를 보건소에 제공하는 것이다.

은평구 보건소에서 올해 9월 말부터 판독 서비스가 가능한 질환은 폐결핵이다. 올해 안으로 결핵, 기흉, 폐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폐 질환들은 발병 빈도와 사망률이 높아 정확한 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판독 서비스가 완성되면 지역단위의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외부 전문기관에 엑스레이 영상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는데, 의뢰 후 결과를 받는 시간이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 이번 서비스로 기존 하루 정도 걸렸던 보건소 엑스레이

판독 시간은 20초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LG CNS가 추진하는 이번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엑스레이 기기가 있는 의료기관 어디서나 쉽게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은평구 AI보건소의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는 지난 30년간 IT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의료AI 스타트업 루닛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데, 대기업의 IT 사업 역량과 스타트업의 전문 AI 기술력을 결합한 상생의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세윤 기자 yuni2514@